

「음악계 샛별」 교포소녀 모국나들이

국제무대를 누비는 한국계 연주자들의 상당수는 미주 태생. 바이올린 분야만 짚어봐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장영주를 비롯, 줄리엣 강(캐나다) 캐서린 조(미국) 등 스타급들이 하나같이 이 범주에 속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치민다. 다른 대륙의 교포사회도 영재교육 열기로는 뒤질 게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조용한가. 음악영재에겐 혹시 미주가 천혜의 대륙인가.

두 교포소녀가 잇따라 모국 무대에 오

■濠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지

26·30일 국회회관·광주서 공연

佛메뉴인콩쿠르 사상 최연소 우승

■獨 피아니스트 카롤리네 피셔

17·22일 독주회·합주단과 협연

獨청소년음악경연서 6차례 석권

른다. 호주 교포2세 박수지(17·바이올린)와 독일 교포2세 카롤리네 피셔(15·피아노).

공교롭게도 둘 다 출생국 문화사절로 발탁된 샛별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다. 탄탄한 미래가 군말 없이 시사되기 때문이다. 기대감은 그래서 더욱 크다. 유럽과 호주 대륙이 마침내 뭔가 보여주는 셈이다.

박수지는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메뉴인국제콩쿠르에서 사상 최연소 기록으로 우승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콩쿠르 무계로는 이미 특급 반열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호주정부의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친선대사 역의 호주 음악가는 박수지를 포함해 단 두명. 현대음악의 기수로 구미 무대에서 다채롭게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박수지(바이올린)



▷카롤리네 피셔(피아노)

마이클 키어란 하비(38)가 다른 한명이다. 이번 나들이에도 동행한다.

박수지는 국제문화교류협회와 주한호주 대사관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특별연주회에 나선다. 모차르트의 「소나타 사장조」, 라벨의 「치간」 등을 김유은의 피아노 반주로 들려줄 예정. 이어 30일 오후7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도 오른다. (02)730-6490

카롤리네 피셔는 어머니가 한국인. 독일의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이 국민으로 방한한 지난해 9월 「한국계 문화사절」로 집중 조명을 받은 소녀 피아니스트다. 당시 특별연주회에서 서울바로크합주단과

협연해 정갈한 타건을 선보였다.

수상경력도 남다르다. 지난 90년부터 무려 6회에 걸쳐 독일청소년음악경연대회 우승을 독차지한 것. 이 경연대회는 안네 소피 무터(바이올린) 등 기존 클래식스타들을 배출한 등용문으로 유명하다.

피셔는 22일 오후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또다시 서울바로크합주단과 협연한다. 멘델스존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한국초연. 이에 앞서 17일 오후7시 서울 남산 독일문화원 강당에서 바흐 베토벤 쇼팽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도 갖는다. (02)396-5994, 754-9831
(李承鉉기자)